

현대 태국 화인사회의 발전과 변화

조 흥 국*

- 목 차 -

- I. 이끄는 말
- II. 1910년 이후 화인사회의 변천
- III. 경제 및 정치적 활동
- IV. 동화와 정체성: 이중적 정체성
- V. 종합적 관찰

I. 이끄는 말

수년 전까지 거의 완전하게 타이 사회에 동화되었다고 여겨져 왔던 태국의 화인¹⁾들이 최근 다시 중국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으로 인한 중국과의 사업상의 엄청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그동안 타이 사회의 일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1) 화인(華人)은 대개 영어의 "ethnic Chinese", 화교(華僑)는 "overseas Chinese"를 지칭한다. 본고에서 화교는 "중국인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모두 중화세계의 일부"(Wang Gungwu 1991, 6-8)라는 민족주의적 인식을 그 근저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을 삼간다. 그 대신 화인이라는 개념을 선호하여 이것을 동화되었건 동화되어 있지 않건 간에 "중국적인 것"(Chinese-ness)를 보여 주는 태국의 모든 "중국인"들에게 적용한다.

부분을 구성하면서 조상의 나라인 중국을 잊고 살아 왔던 많은 화인들이 무엇보다도 비즈니스의 목적을 위해 중국을 다시 찾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관심이 경제적인 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의 습득과 중국 문화의 재발견으로 확대되어 간다는 점이다 (Vatikiotis 1996, 22). 비록 태국 화인사회의 부분적 현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동화된” 화인사회의 재중국화(re-sinicisation), 즉 중국적 정체성 회복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Hicks & Mackie 1994, 46). 화인들의 이같은 중국지향적 상황이 야기하는 우려는 화인들이 타이 사회에서 지니는 중요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요성은 중국인 문제(Chinese problem)라는 개념으로 커글린에 의해 다각도로 분석된 바 있다(Coughlin 1960, 1-11). 이 개념은 비록 오래 전에 제기된 패러다임이지만 화인들과 관련된 경제정치적, 사회문화적인 근본문제들이, 본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지속하고 있으므로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 문제는 여기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문제로서, 화인들은 태국이라는 국민국가의 사회 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소수종족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태국의 주요 도시들의 상업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태국의 경제적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그밖에도 식품가공업과 섬유공업 등을 비롯한 각종 산업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러 핵심산업 분야들에서의 노동력을 제공해 왔다. 현대 태국의 경제적 발전은 기실 화인들의 역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 능력과 활동 때문에 화인들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타이인들에 의해 종종 태국의 경제를 착취하는 “동양의 유대인”(Jews of the Orient)으로 경원시되었고 타이 사회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되었다.

둘째는 이처럼 강한 경제력을 지닌 화인들이 태국 인구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로서, 이것은 타이 사회의 구조와 관계된다. 1950년대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중국인 이주가 거의 종식되면서 중국국적을 지닌 “공식적” 화인의 숫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비록 태국국적을 가진 화예(華裔), 즉 화인 후예들이지만 그 중 외모가 중국인처럼 보이고

중국어를 구사하며 중국식 생활을 하며 중국인 조상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소위 “문화적 화인”(cultural Chinese)을 포함시키면 태국 인구 중 화인의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물론 문화적 화인을 규정할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며, 따라서 그들의 숫자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최근 나타나고 있는 화인들의 “중국 찾기” 현상이 그동안 동화되었다고 간주된 많은 화인들에게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화인사회의 잠재적 숫자는 기존의 통계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태국 화인에 관한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인 사라신 위라폰(Sarasin Viraphol)은 “태국 인구의 90% 정도가 중국인 피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Kamolwan Sonsomsook 1981). 이것은 물론 과장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수치로 보아야 하겠지만, 장구한 이주, 정착의 역사를 갖고 있는 화인들이 타이 사회와의 오랜 혼혈과 깊은 동화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인 요소가 타이 사회에 광범위하고 깊게 퍼져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현대 태국의 이해를 위해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을 지닌 화인들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20세기 화인들의 활동과 역할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인들과 타이 사회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장에서 1910년 이후 최근까지 화인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한다. 태국 화인사회 연구에 있어서 1910년의 의미는 태국 역사에서 타이민족주의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반중국인적 입장을 강하게 보인 라마6세의 통치가 1910년에 시작되었다는 점과 중화민족주의적 경향이 1911년 신해혁명을 전후로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1910년 전후로 중국인들의 이주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놓여 있다. 화인들의 정치경제적 활동을 다루는 세 번째 장에서는 특히 그들의 경제적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징들과 이러한 특징들을 형성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논의되는 화인들은 거의 대부분 타이 사회에 동화된 중국계 타이인(Sino-Thai)이지만 아직도 “중국적인 것”, 즉 중국적 정체성(identity)을 보여 주는 자들이다. 화인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토착사회와의 관계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네 번째 장에서는 화인들의 타이 사회로의 동화(assimilation) 문제와 종족정체성

(ethnic identity)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II. 1910년 이후 화인사회의 변천

태국 화인사회의 양적인 발전과 구조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기본자료가 되는 통계수치, 특히 태국 당국이 작성한 화인 관련 통계수치를 사용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문제가 따른다. 그 이유는 첫째 “화인”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화인사회를 역사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직 명확치 않다는 점에 있다. 타이 정부는 1913-1914년 사이에 제정한 태국국적법에서 태국에서 태어난 자는 태국인으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예컨대 1947년 인구조사시 태국 태생의 모든 화인들을 태국인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중국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두 번째의 이유로 인구조사상의 기술적인 문제와 인구조사 그 자체의 동기를 들 수 있다. 이미 20세기 전반기에 타이 정부가 수 차례 행한 인구조사는 그에 앞서 화인사회와 타이 정부 및 타이 사회간의 심각한 알력을 그 배경에 둔 것이었다. 예컨대 1929년 인구조사의 경우, 1928년 화인들의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대한 타이 사회에 반화인 정서가 고조되어 있었고, 1928-1929년 사이 타이 정부가 이민세를 올린 것에 대해 화인들의 반감이 팽배해 있었다. 1937년 인구조사의 경우에는, 1936-1937년 사이에 20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들이 등록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강요한 외국인등록법의 제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화인사회의 반감이 있었던 것이다. 1947년의 인구조사도 그에 앞서 수주일 전에 중국인 이민할당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태국의 화인들은 타이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따라서 예컨대 최근까지 징수 및 징병을 회피하기 위해 타이 정부의 인구조사에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는 등 인구조사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게다가 인구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조사가 행해졌는지에 대한 의심이 제기된다 (Skinner 1957, 183-185). 이러한 원인들에서 비롯되는 통계수치의 문제

는 본고에서 1945년 이후 화인사회의 변천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극복될 수 없는 한 장애가 된다.

태국 화인사회는 19세기 중엽 서양자본의 유입 이후 태국 경제의 전반적 호황이 중국인 노동력을 계속 필요로 함에 따라 1910년 이후에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스키너에 의하면, 태국에 입국한 중국인 숫자는 1903-1910년간 년평균 60,425명이었으나, 1911-1917년간에는 69,500명으로 증가했다. 증가 추세는 대공황이 닥치기 전인 1931년까지 지속되어 1918-1931년간 년평균 입국자수는 94,800명에 달했다. 년평균 출국자수 59,100명을 빼고 계산하면, 14년간 모두 약 50만명의 중국인이 태국에 잔류하여 그만큼 화인사회를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증가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요인들에 기인한다. 첫째 1920년대 태국의 고무 및 주석 산업의 호경기, 둘째 해외무역의 번성, 셋째 수많은 쿨리들을 고용한 도정업(搗精業)과 제재업의 계속적인 호황, 넷째 중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한 철도 및 도로건설의 확대, 다섯째 태국이 당시 동양에서 가장 임금에 높았던 나라라는 점 등이다. 이들은 모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팽창된 태국 경제의 측면들이었다. 중국적 요인들로서는 1910년대와 1920년대 중엽 하이난(海南)에서의 쌀흉작 외에도, 1920년대 군벌간의 전쟁으로 특히 떤오츄(潮州) 지방이 사회적 혼란을 겪고 농지가 황폐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국부적 요인으로는 1909-1910년간 선박회사들 사이에 스와토(汕頭)-방콕 여객운임을 둘러싼 가격 하락경쟁이었다. 특히 떤오츄인들의 이주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 요인은 1909/10년 입국자수가 66,800명에서 1910/11년 80,800명으로 증가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Skinner 1957, 61-67, 172-174).

193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화인사회는 1932-1945년간 년평균 불과 6,600명의 성장을 보였다. 특히 1933년과 1934년, 그리고 1942년과 1943년에는 입국자보다 출국자가 더 많았다. 그 원인으로 1930년대 초 세계경제공황의 여파로 침체된 태국의 경제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까지 민족주의적인 타이 정부의 반화인정책, 그리고 1941년부터 본격화된 태평양전쟁으로 중국과 태국간 여객선 운항이 어렵게 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수년 간 년평균 16,000으로 어느 정도 다시 증가

세를 보였다. 특히 1946년과 1947년에 각각 8만, 6만명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그 이유는 첫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의 피해가 심각한 중국으로부터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전화를 입지 않고 경제적으로 빨리 회복되고 있었던 태국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이었다. 둘째로는 당시 타이 정부가 곧 입국세를 인상하거나 이민할당제를 중국인들에게 실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타이 정부는 1946년에 중국인 이민의 숫자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 이듬해 5월에 처음으로 이민할당제를 도입하여 매년 중국인 이민을 10,000명으로 제한했다. 1949년 초에는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이민 숫자와 같은 수준인 매년 200명으로 격감시켰다. 1950년에 제정된 이민법은 이에 더하여 외국인 체류허가비를 1,000바트로 책정했다(Wanlapha Burutsaphat 1974, 19). 이러한 여러 조치들은 1950년대 전반기 입국자 및 출국자 숫자에서 그 영향을 보여준다. 1950년 이후 태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은 대부분 재입국하는 왕년의 체류자들이거나, 일시적인 방문자 혹은 체류허가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부유한 자들이었다(Skinner 1957, 172-178). 1950년경부터 중국이민자의 숫자를 현저히 감소시킨 여

〈표 1〉 1900-1955년간 태국의 인구수와 화인 숫자 (추정치)

년 도	총인구수	화인 전체		중국태생 화인		태국태생 화인	
		숫 자	총인구대 비율	숫 자	증가율	숫 자	증가율
1900	7,320,000	608,000	8.3%	222,000		386,000	
1910	8,305,000	792,000	9.5%	325,000	46.4%	467,000	21.0%
1917	9,232,000	906,000	9.8%	349,000	7.4%	557,000	19.3%
1922	10,202,000	1,079,000	10.5%	445,000	27.5%	634,000	13.8%
1927	11,419,000	1,333,000	11.7%	600,000	34.8%	733,000	15.6%
1932	13,087,000	1,592,000	12.2%	728,000	21.3%	864,000	17.9%
1937	14,721,000	1,734,000	11.8%	714,000	- 1.9%	1,020,000	18.1%
1942	16,066,000	1,876,000	11.7%	689,000	- 3.5%	1,187,000	16.4%
1947	17,643,000	2,124,000	12.0%	765,000	4.3%	1,359,000	7.7%
1952	19,384,000	2,251,000	11.5%	727,000	3.8%	1,524,000	7.9%
1955	20,480,000	2,315,000	11.3%	696,000	3.4%	1,619,000	7.9%

출처: Skinner (1957, 79, 183)에서 정리

러 법적인 조치의 장본인은 1948년부터 1957년까지 재집권한 피분 송크람(Phibun Songkhram) 정부였다(Coughlin 1960, 25-26). 이때까지 고찰한 여러 요인들의 결과 20세기 초부터 1955년경까지 태국 화인사회는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양적인 변화를 보여 주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50년대 이후 태국의 총인구에 대한 화인 숫자의 비율이 감소되었다. 그 이유로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타이 정부의 이주제한 정책 외에도 1949년 말 중국에서의 공산주의의 승리로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이주의 물결이 종식된 점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위의 1950년대 들어서서 중국태생 화인의 비율이 점차 떨어지고 그에 반해 태국태생 화인의 비율이 점차 늘어났다(Skinner 1957, 188-189). 그리하여 1955년만 하더라도 중국태생 화인의 숫자가 약 70만으로 총인구의 3.4%에 달했으나, 1960년에는 중국국적 화인의 숫자가 409,508명으로 감소하여 총인구의 1.6%에도 채 미치지 못했으며, 1965년에는 348,582명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총인구대 중국국적 화인의 비율은 1970년에는 0.9%로 떨어졌다(Wanlapha Burutsapha 1974, 20-21; Wyatt 1984, 292). 1975년의 통계는 4,330만의 총인구에 316,000명의 중국국적 화인을 기록하고 있어 그 비율이 0.73%에 불과했다. 중국국적 화인의 숫자는 그 후 더욱 낮아져 태국이민청의 공식집계에 따르면 1990년에는 10만도 채 되지 않았다(Thomson 1993, 399).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태국 화인들의 숫자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원인은 다분히 국제정치적 및 경제적 상황의 전개와 연관된 것으로서, 첫째 타이 정부가 홍콩 및 타이완의 많은 사업가들의 이민 신청을 받아들였던 것이 있는데, 이것은 태국으로서는 투자의 유치라는 실용적인 측면을 갖는다. 두 번째의 원인으로 태국이 베트남, 캄보디아로부터 난민을 수용한 것을 들 수 있다. 1975-1983년 사이 받아들인 약 40,000명의 난민 중 60%인 25,000명이 화인들이었다(方雄普, 謝成佳 1993, 226).

위에서 서술한 바 중국국적 화인들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의 화인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50년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소위 “신객화인(新客華人)”의 대규모 이주가 끝난 상황에서 태국의 화인들로서는 타이 정부의 동화정책을 맞이하여 점차 중국국적을 버리고 태국으로 귀화할 수밖에 없

었다. 그러나 그들은 뒤에서 다시 논의되었지만 특히 1세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2세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화인으로 남아 있었다. 커티스 톰슨은 스키너가 제시한 1955년의 약 230만 화인의 수를 근거로, 타이인들과 중국인들간에 결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매년 평균 2.5%의 인구성장률을 적용하여 1990년경 약 600만명의 화인수를 추정한다(Thomson 1993, 399).

화인사회의 양적인 변화에 이어 중시되어야 할 것은 화인들의 지역별 분포 상황으로, 이것은 특히 화인들의 경제적 활동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태국의 화인사회는 초기부터 상업상 중요하고 유리한 짜오프라야강 하류지역과 해안지방 그리고 주석광산 및 고무산업이 발달해 있는 말레이 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중국인들은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점차 확대된 철도망을 따라 철도선이 연결되는 모든 주요 지방도시들로 확산되었다. 다음의 표는 1947년 시점 그러한 확산의 결과를 말해 준다.

〈표 2〉 중국 국적 화인의 지역별 분포 (1947년)

지 역	짜오프라야강 하류지역	하류의 서남 지역	하류의 동남 지역	남부 지역	중부 지역	동북부 지역	북부 지역
숫 자	310,650	28,250	34,513	50,614	24,847	21,535	6,179
분포비율	65.2%	5.9%	7.2%	10.6%	5.2%	4.5%	1.3%

출처: Skinner(1957, 199)로부터 재정리

위의 표는 비록 중국국적의 화인들에게만 국한된 통계이지만 그 전체적인 비율구조는 태국 화인사회 전반에 어느 정도의 오차를 전제로 두고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화인들의 분포 지역들 중 가장 중요한 곳은 중국인들의 태국 이주의 관문이자 교통 및 상업의 중심지인 방콕이다. 위의 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화인들의 대다수는 방콕을 중심으로한 짜오프라야강의 하류지역에 정착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표 3〉이 보여주는 방콕 인구 중 중국국적 화인들의 비율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즉 태국 총인구의 1.5% 미만에 불과한 중국국적 화인의 비율이 방콕에서는 1950년대 전반기 평균

25%에 달했던 것이다. 이것은 물론 화인들의 직업활동과 긴밀히 연결된 현상이었다. 이 표에서 방콕 인구대 화인 비율이 점차 낮아진 것은 위의 <표 1>에서 나타난 1950년대 이후 태국의 총인구에 대한 화인 숫자 비율의 전반적인 감소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표 3> 1950년대 전반기 방콕의 인구와 중국국적 화인(중국인) 인구의 비교

년 도	방콕의 총인구	중국인 숫자	방콕 인구대 중국인 비율
1950	757,636	214,743	28.3%
1952	845,374	218,288	25.8%
1954	951,965	224,060	23.5%
1955	1,024,502	235,227	23.0%

출처: Skinner(1957, 204)

태국 경제의 중심인 방콕의 인구구성은 중국국적 화인들에 태국태생의 화인들을 합하면 화인의 숫자가 타이인의 숫자를 압도적으로 능가하게 된다. 이것은 1954년경 방콕의 상업중심지역과 그 주위지역의 인구구성을 보여 주는 다음의 <표 4>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방콕의 핵심지역 주민의 약 ⅓이 화인이라는 사실이며, 이것은 한편 화인들의 상업지향성을 여실히 입증한다.

<표 4> 방콕의 상업중심지역과 그 주위지역의 인구구성 (1954년)

분류	상업중심지역	비율%	주위지역	비율%	양지역 합계	비율%
중국국적화인	130,730	38.5	104,047	21.2	234,777	28.2
태국국적화인	134,711	39.6	114,828	23.4	249,539	30.0
타이인	72,536	21.3	267,932	54.5	340,468	40.9
타국적소유자	2,090	0.6	4,524	0.9	6,614	0.8
계	340,067	100.0	491,331	100.0	831,398	99.9

출처: Skinner(1957, 206)로부터 재정리

끝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국 화인의 방언집단별 분포상황을 보면, 우선 떼오츄의 지배적인 상황이 두드러진다. 밑의 <표 5>에서 볼 수 있는 떼오

츄 그룹의 지배적인 점유율의 배경은 18세기 후반기로 소급되는 것으로서, 그 이후 동향관계를 바탕으로 떼오츄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주한 결과였다. 그들은 특히 학카(客家)인들과 더불어 태국의 동북부 지방 화인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1920-1930년대 이 지역으로의 철도 및 도로망 확대와 함께 많은 떼오츄인들과 학카인들이 철도 및 도로건설 노동자로 이주했기 때문이었다. 방콕 이민국의 기록에 의하면, 1946년 해상을 통한 중국인 입국자의 숫자는 모두 81,902명이었으며, 스와토 항구의 기록에 따르면 같은 해 스와토를 떠나 방콕으로 직접 이민간 중국인은 모두 40,875명이었다. 스와토로부터의 이민자가 약 반을 차지하는 이 수치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떼오츄인들이 태국행 중국인 이민 중 가장 큰 부분을 점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1920년대 철도 및 도로건설을 통한 개방의 결과 북부의 난(Nan), 치앙라이(Chiang Rai), 프래(Phrae), 람똥(Lampang) 등에도 많은 화인들이 이주해 들어왔는데, 이 지역들에서는 학카인들이 숫적으로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발전의 결정적인 원인은 평순(豐順) 출신 학카인 찬차이칭(詹采卿)이라는 인물로서, 이 지역들에서 술 및 아편 판매 특권을 기반으로 부와 사회적 영향력을 축적한 그는 여러 곳에 시장, 정미소, 증류주 공장들을 세웠으며 이러한 사업체들에 동향의 중국인들을 이주시켜 고용했던 것이다. 한편 남부지방에서는 복잡한 구성을 보여준다. 라농(Ranong)부터 트랑(Trang)에 이르는 말레이 반도 서안지역 특히 푸켓(Phuket)과 빠따니(Pattani) 등 무역 및 주석산지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에서는 대부분 흑키엔(福建)이 지배적이다. 그에 비해 송클라(Songkhla)에서는 학카가 가장 많고, 얄라(Yala)에서는 떼오츄가 가장 큰 화인집단을 형성한다(Skinner 1957, 180, 198-208).

〈표 5〉 태국 화인의 방언집단별 분류

방언집단	떼오츄(潮州)	학카(客家)	하이난(海南)	흑키엔(福建)	칸톤(廣東)	기타
%	56.0	16.0	12.0	7.0	7.0	2.0

출처: Skinner(1957, 212); Thomson(1993, 400)

Ⅲ. 경제 및 정치적 활동

화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크게 팽창된 태국의 경제에서 이전보다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 점은 1910-1938년간 태국 전체 수출의 82-92%를 차지한 쌀, 목재, 주석, 고무 산업에서 화인들의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다. 우선 도정업을 보면, 19세기 중엽 서양인들에 의해 증기정미기가 도입된 후 태국의 도정업은 서양인들의 자본에 의해 지배되었으나, 1870년대부터 화인들도 증기를 이용한 도정업에 참가하여 오래 전부터 쌀장사에서 지배적인 유통망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점차 서양인들을 능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럽인들이 도정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1919년경이 되면 방콕의 66개 큰 정미소 가운데 56개가 화인 자본이었는데, 방콕의 도정업은 거의 떼오추인들이 독점했다. 시골의 정미소도 80% 이상이 중국인들의 소유였다(Skinner 1957, 213-214).

태국의 화인들이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중요한 패턴 중의 하나로 많은 쌀사업가들이 도정업을 바탕으로 그들의 사업을 다른 분야로 확대한 것을 들 수 있다. 예컨대 1932년경 왕리(Wang Lee), 림헝찬(Lim Heng Chan), 친생(Chin Seng) 등 세 화인 가문의 정미소들은 방콕 도정업의 총 생산량의 약 반을 차지했는데, 이들은 모두 1930년대 그동안 유럽인 자본이 장악해 왔던 은행업 및 보험업과 선박업 등의 분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대했다. 도정업에 종사한 중국상인, 특히 떼오추 상인들 중에는 쌀수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다(Suehiro 1985: 2, 26-29). 특히 쌀무역은 방콕, 싱가포르, 홍콩, 중국간의 유통망으로 구성되어 소위 "사각 무역"(quadrangle trade)이라고 불리우며, 대부분 국제적인 신용관계로 거래되어 왔다. 신용이 쌀무역에서 이처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화인 기업가들은 거래의 효율성을 위해 은행을 설립했다(Suehiro 1992, 42-44).

제재업은 화인들의 역할과 유럽 자본의 역할로 구분된다. 밀립에서의 벌목과 수출 분야를 지배한 유럽인 자본은 1910-1938년간 방콕의 큰 제재소와 목재상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화인 자본의 진출은 소극적이어서 예컨

대 1924년의 경우 방콕의 9개 근대식 대규모 제재소 가운데 3개만 중국인의 소유였다. 그러나 소규모 제재소들은 거의 모두 중국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게다가 제재소의 노동력은 화인 소유이건 유럽인 소유이건 간에 거의 중국인 콜리들이 담당했다(Ingram 1971, 107).

주석광업은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이 지배하던 분야였으나, 20세기초 준설기가 주석광산에 도입됨으로써 화인 자본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하여 1926-1927년까지 전통적인 수작업에 의한 주석 생산량이 준설기에 의한 생산량보다 두 배 이상 되었으나, 1936/37년에는 준설기에 의한 생산량이 수작업에 의한 것보다 1.6배 이상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인 자본의 주석광산들은 1920-1930년대에 연간 5,000톤을 채굴하여 1910년대 중엽 호황시기의 연간 생산량인 6,000톤의 상당 부분을 유지했다(Ingram, 1971: 100). 또한 제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석광산 노동력의 대부분은 화인 소유이건 유럽인 소유이건 중국인 콜리들이 공급했다. 한편 중국인 주석광산업자들과 주석 상인들은 대부분 흑키엔인과 학카인들이었다. 전자의 경우, 그것은 말레이반도가 전통적으로 흑키엔 이민지역인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Skinner 1957, 215).

말라야에서 이주해 온 중국인들에 의해 제1차 세계대전 중 태국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고무는 1930년대 말에 되면 쌀과 주석에 이어 태국의 세 번째 수출품목이 되었다. 고무산업은 자본, 재배, 가공, 수출 등 그 모든 단계에서 중국인들이 지배적이었다. 고무 생산은 대부분 중국인들의 소규모 플랜테이션에서 이루어졌다. 1930년대 말 약 70,000명으로 추산된 고무재배 농민들은 대부분 학카인들이었다. 그에 비해 고무를 매입, 가공, 수출하는 상인들은 거의 모두 흑키엔인들이었다. 즉 고무 산업에서도 주석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흑키엔인과 학카인들의 지배적인 역할이 확인된다(Skinner 1957, 216; Ingram 1971, 101-105).

중국인들은 쌀 이외 다른 식품들, 특히 돼지고기, 생선, 채소, 설탕의 생산과 유통에서도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태국의 돼지고기는 1938년경까지 거의 전적으로 중국인들에 의해 사육, 도살, 판매되었다. 중국인들은 수산업에서도 1930년대 말까지 지배적이어서, 태국의 연안어업과 생선의 국내 유통 및 수

출은 중국인 수산업자들의 손에 있었다(Landon 1941, 236; Skinner 1957, 217). 중국인들은 또한 도시 근교의 상업적 채소재배도 장악했다. 중국인들의 채소농원은 방콕을 위시한 도시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설탕산업의 경우, 중국인들은 고무산업에서와 같이 자본, 재배, 가공, 유통 등 모든 분야를 지배했다. 1921년 이후 촌부리 지방을 중심으로 부흥하기 시작한 태국의 설탕제조업은 1927년 이후 수입설탕에 대해 특별관세가 적용됨으로써 많은 혜택을 보았다. 설탕산업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세계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로 더욱 팽창하여, 이 분야 중국인 자본이 크게 확대되었다(Ingram 1971, 125-127).

중국인들의 역할이 두드러진 그밖의 경제활동으로 노동 부문에서도 중국인들은 특히 비농업분야 노동력의 60-75%를 공급했다. 중국인 노동력이 주로 활동하는 숙련노동에는 기술공, 목수, 각종 장인, 십장, 회사원 등이, 비숙련 노동에는 정미소, 제재소, 고무공장, 설탕공장 등의 인부, 부두하역 인부, 광부, 건설인부, 짐꾼 및 인력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Skinner 1957, 217-218). 중국인들의 이러한 제반 경제활동은 1930년대 초 대공황과 1932년 입헌혁명 특히 1938년 피분 송크람 정부의 등장 이후 강력히 실시된 반화인적인 타이민족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화인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타이인들의 몫을 그만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입헌정부 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파혼(Phahon) 정부(1933-1938)는 예컨대 1934년 방콕상공회의소(Bangkok Chamber of Commerce)를 설립하여 당시 90% 이상이 중국인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던 태국의 상업에 타이인들의 활동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1935/36년에는 노동 분야에서 타이인들의 경제적 상황 개선을 위해 모든 정미소가 최소한 50% 이상의 타이인들을 인부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을 공포했다. 또한 철도건설의 인부도 점차 태국국적을 가진 자들로 대체시켜 나갔다. 1936년 11월에는 태국 내의 제반 상업적 활동을 정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목적으로 비즈니스 등록법을 공포하여 모든 회사들의 등록을 강요했으며, 또한 상업적 간판에 반드시 타이 글자가 포함될 것을 의무화했다(Thompson 1941, 115; Skinner 1957, 220-221).

타이 정부의 반화인 경제정책은 피분이 집권한 1938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족주의자이자 친일적인 파시즘 정부를 이끌었던 그의 화인 경제활동 규제들은 대부분 1938년 말-1939년의 입법과정을 통해 제정되었다. 우선 중국인 쌀상인들의 유통체계를 파괴하기 위해 1938년 12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Thai Rice Company를 설립했다. 중국인들의 수산업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는 태국 영해에서 외국인의 어로활동을 금지하는 1939년 8월의 태국 영해에서의 어업권 조례에 의해 파괴되었다(Landon 1941, 236-237, 243-245; Ingram 1971, 38, 70-71). 그의 화인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 조치들로서 제비집 독점권을 정부 혹은 정부위탁 상인에게 유보한 법, 정부 청사 구역 및 국공립 학교 구역 내에서 외국인의 음식행상을 금지한 법, 소금과 담배 산업을 정부 통제하에 두는 법, 태국국적 소지자 즉 태국국민에게만 도축과 고기소매를 허락한 정육업 통제법, 택시 및 버스운전을 오직 태국국민에게만 제한한 차량법 등이 있었다. 피분 정부는 이에 더하여 고무과 주석 산업도 국가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 노력했다. 파시즘이 고조에 달했던 1942년에는 불상 주조 및 판매, 벽돌, 장작, 석탄, 팻불의 제조 및 판매, 여성 모자 제조, 여성복의 재단, 등나무 세공, 칠기 수공업, 타이 활자의 식자, 우산 제조, 미용 및 이발업 등등 27가지 직종을 전국에 걸쳐 오직 태국국민에게만 허용하는 법령을 공포했다(Landon 1941, 215-260; Skinner 1957, 262-276).

수에히로는 피분 정권이 화인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간접한 분야를 첫째 도정업과 이와 연관된 은행업, 보험업, 선박업 등의 분야, 둘째 수입무역과 수입품 및 국내생산품의 국내 유통, 셋째 상업은행 분야에 대한 직접적 진출, 넷째 주요 제조업 및 수공업 분야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Suehiro 1985, 2-39-46). 태국의 주요 산업 분야들에서 화인자본을 억제하기 위한 타이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를 얻지 못했다. 첫째 타이 정부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화인 사업가들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화인 사업가들로서도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타이 정부와 결탁했기 때문에, 여러 중요한 화인 기업들이 그들의 경제적 활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

다. 예컨대 화인 사업가와 타이 정치엘리트간의 결탁은 이미 1930년대와 1940년대 초에 람삼-왕리(Lamsam-Wanglee) 그룹과 뿌리디 파벌간의 제휴로 나타났는데, 1944년에 이 그룹은 타이 정부의 후원하에 Thai Farmers Bank를 설립했다. 둘째 1941년 말-1945년 일제 점령기간 일본군의 내정 간섭으로 타이 정부가 반화인 경제정책을 철저하게 추진할 수 없었으며, 특히 일본군이 필요로 했거나 일본군에 협력했던 화인 사업가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활발한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Skinner 1957, 273; Suehiro 1992, 45).

제2차 세계대전 후 태국 화인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타이 정부가 1930년대-1940년대 전반기에 서와 마찬가지로 타이민족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쳤다는 점이다. 그 목적은 한편으로는 화인들을 타이 사회의 경제체제에 동화시킨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타이인들의 경제활동을 확대시킨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측면은 타이 정부가 국내 상업은행을 발전시키며 1960년대 이후에는 산업진흥정책 특히 수입대체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하여 국내의 제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측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측면의 직접적 결과로 태국의 화인들이 1945년 이후 한편으로는 그들의 경제활동이 점차 제한되면서 경제적으로 타이 사회로 동화되어 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이 정부의 금융 및 산업정책에 편승하여 금융업 및 제조업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그들의 경제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1948년 재집권한 피분 정부는 전쟁 전의 반화인 경제정책을 지속시켜 특정 직업들을 태국국민에게만 유보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다양한 행정규칙들과 행정명령들을 통해 화인들의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했다. 1949년 중국에서의 공산주의 승리 이후 타이 정부가 취한 반공정책도 화인사회의 활동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데 기여했다 (Skinner 1957, 261 ff.; Suehiro 1992, 47). 피분 정부의 반화인정책은 사릿 타나랏(Sarit Thanarat)의 집권 시기(1957-1963)에도 계승되어, 예컨대 1958년 말 13가지 직종을 택하여 태국국민에게만 허용한다고 발표했는데, 명목상의 이유는 “근면한 중국인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추진

되어 왔던 태국국민 우대의 고용정책도 계속되었다. 이미 1939년 피분 정부는 모든 공장들은 최소한 75%의 타이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바 있었지만, 전후에도 계속하여 태국국민 우대고용법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1956년에 구체화되어, 10명 이상의 고용자를 가진 모든 기업체, 무역회사, 상점들은 일정한 비율의 태국국민을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바탕으로 사릿 정부는 1959년 1월에 최소한 50%의 태국국민을 고용해야 할 사업분야로서 용접, 금속도금, 제화, 가구제작, 직조, 자동차 조립 및 수리, 오토바이 조립 및 수리, 라디오 조립 및 수리, 건축, 성냥공장 등 10가지를 선정했다(Coughlin 1960, 131-134, 209-210).

이러한 규제들은 그러나 많은 중국인들이 태국국적을 취득하여 태국으로 귀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화인들의 경제적 힘을 제한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그다지 효율적인 결과를 보지 못했다. 그것은 예컨대 실제로 시행된 직업 제한조치들이 일반적 소매가게, 행상, 정미소, 쌀가게, 제재소 등 화인사회의 주요 경제기반이 되는 직업들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직업 제한조치에 저촉된 직업들의 경우, 상당 부분 태국국적을 갖고 있는 화인 후예들에 의해 운영되었고, 중국국적의 화인들이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아들이나 아내 혹은 다른 친척의 명의로 두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국국민 우대고용법의 경우에서도, 비록 위의 사업들이 모두 화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지만, 기존의 고용 인원에 대해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더군다나 태국국적을 취득해 놓은 화인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타이 정부의 규제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화인들의 실질적 상업활동을 거의 위축시키지 않았다. 규제들은 오히려 태국 화인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 활동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전혀 기대치 않았던 파급적 효과를 낳았다(Coughlin 1960, 136-140).

첫 번째는 규제조치들이 화인들을 강하게 결속시켰고 그들의 조직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상업을 하는, 특히 큰 사업체를 경영하는 화인들은 태국중화총상회(泰國中華總商會) 등 기존 단체의 결속

력을 강화했으며 혹은 새로운 단체를 결성했다.²⁾ 예컨대 1938년 몇 명의 뎬오쥬 지도자들이 발기하여 결성한 태국조주회관(泰國潮州會館)을 들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에는 조주회관의 대표가 광조회관(廣肇會館), 해남회관(海南會館), 강절회관(江浙會館), 대만회관(臺灣會館), 객속회관(客屬會館), 복건회관(福建會館)의 대표들에게 주말마다 우의를 결속키 위한 식사모임을 제의했고, 이 모임은 뒤에 운남회관(雲南會館), 광서회관(廣西會館)이 추가로 가입하여 소위 구속회관(九屬會館) 대표들의 매월 회식모임으로 발전했다. 1975년 타이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화인단체의 총 숫자는 2,000개 이상이었고, 방콕에만도 등록된 단체가 180개 이상이었다(方雄普, 謝成佳 1993, 196-199).

두 번째의 영향은 화인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측면으로서 화인 사업가들이 그들의 사업을 각종 규제조치와 태국화(Thai-ification) 정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타이 정치엘리트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발전시킨 점이다. 특히 큰 사업체의 화인들은 지도급 정치인들과 군부지도자들과 재정적 공조관계를 맺어, 예컨대 그들을 자신의 회사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이사로 초빙했으며 그 대가로 회사를 정부의 규제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기대했다. 이미 1952년 말경에는 화인사회의 대부분 지도급 인사들이 타이 엘리트와의 이러한 공식적 사업관계를 구축해 놓고 있었으며, 수백명의 고위 공무원들과 타이 엘리트의 실세들이 화인 사업체에 완전히 개입해 있었거나 혹은 보호적 기능에서 회사의 중역진에 포함되어 있었다(Skinner 1958, 186-187). 태국의 정치엘리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그들은 각종 국영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효과적인 경영을 위해 자본, 기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화인 사업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했다. 이를 통해 어쨌든, 그동안 여러 타이 정부들이 추구해온 반화인정책의 목적과는 달리, 화인 사업체들이 크게 성장했다. 특히 1947년 군부쿠데타 후 화인 상인들과 은행가들은 핀 춘하완(Phin Choonhavan), 파오 시야논(Phao Sriyanon), 사릿 타나랏 등

2) 화인단체는 해외로 이주한 중국인들이 상호협조와 단결을 위해 만든 조직체로서 그 성원의 성격에 따라 크게 혈연(血緣), 지연(地緣), 업연(業緣) 단체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에 대해 方雄普, 謝成佳(1993, 162-168)을 참조.

의 군부 실세들을 자신들의 기업에 이사로 초빙했다. 1950년대 많은 화인 기업들이 군부지도자들과의 결탁을 통해 급성장을 보았다(Suehiro 1992, 41-42, 45-47).

화인 사업체 가운데 특히 소폰파닛(Sophonphanich), 람삼(Lamsam), 테차파이분(Techaphaibun), 라따나락(Rattanak) 등 소위 4대가문("The Big Four Families")과 그들이 소유하는 상업은행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무엇보다도 사릿, 뿌라팻(Praphat), 뿌라셋(Prasoet) 등의 군부 실세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보았다. 그들은 이러한 후원자들에게 회사의 사장 혹은 이사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식을 선물했으며, 그 대신 정부의 개입을 통해 얻어지는 이권과 안전을 확보했다. 태국 상업은행들의 발전은 이미 193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에서 유럽인들의 금융 네트워크가 상당한 정도로 파괴되어 화인 자본의 팽창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요인 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타이정부의 금융정책에 힘입어 1944-1951년 사이 8개의 새로운 상업은행과 25개의 보험회사가 화인자본에 의해 설립되었다. 전후에 등장한 이러한 새로운 은행 및 보험회사들 중에는 1930년대와는 달리 쌀사업을 그 바탕에 두지 않은 화인자본가에 의해 세워진 것들도 있었다. 전후 금융업의 또 다른 특징은 상업은행들과 보험회사들이 대개 한 가문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화인가문 사업체들의 자본과 경영을 규합한 것이라는 점이었다(Suehiro 1985, 3-29; Suehiro 1992, 42-45).

금융업의 발전이 무엇보다도 화인사업가들이 태국의 변화하는 정치적 권력 구조에 효율적으로 결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 제조업 부문의 발전은 앞에서 언급한 타이 정부의 산업진흥 정책이라는 요인 외에 화인사업가들이 해외 자본과 세계시장의 무역 및 금융 네트워크에 효율적으로 의존했다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 1958년에 출범한 사릿 정부는 사적 부문의 국내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초까지 정부의 경제정책에 편승하여 수입대체산업, 특히 섬유, 신발, 식품가공, 화학, 유리, 이차금속, 자동차조립, 가전제품 등의 분야에서 제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금융업과는 달리 군부 지도자들의 강력한 정치적 후원을 받지 못한 제조업 분야에서의 화

인기업들의 성장은 외국 자본과의 결합에 기인한 바가 컸다. 예컨대 “타이 섬유왕”(Thai Textile King)으로도 알려져 있는 수크리(Sukree) 그룹의 경우를 보면, 1963년 일본의 시키보(Shikibo) 방직회사와 노무라(Nomura) 무역회사와 합작한 이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Suehiro 1992, 55-61).

태국의 전반적인 산업화와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화인자본가들은 점차 대규모 사업체의 소유주 및 경영자로 발전하게 되어, 그들 가운데는 은행, 보험회사, 수출입 무역회사, 운송회사, 여행사, 건설회사, 제조업 등을 포괄하는 대기업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화인 사업체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대개 새로운 사업 분야들로 진출하여 회사들을 설립하고 중국에는 이 분야들을 포괄하는 종합상사로 발전하는 패턴을 따른다. 1984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16개 은행중 화인자본의 은행이 11개로서 전국 1,700여개의 은행지점 가운데 화교자본의 지점들이 70%를 점했다. 화인 기업들은 대부분의 경우 금융업을 바탕으로 다른 부문으로 확대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태국의 거대한 복합기업(conglomerate)들이 형성되었던 것이다(方雄普, 謝成佳 1993, 228).

IV. 동화와 정체성: 이중적 정체성

아유타야(Ayutthaya) 시대(1351-1767)와 방콕 시대(1782년 이후) 초기에 걸쳐 이주 중국인들 중 태국에 정착한 자들은 대부분 타이 여자와 결혼했을 것이다. 그러한 사정은 19세기-20세기 초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캠벨의 1902년경 보고에 의하면, 당시 태국에 정착한 중국인들은 대부분 타이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이유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태국에는 이주 중국인 여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Campbell 1902, 274-275).³⁾ 화인 1세 경우의 정체성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화인 후예들의 정체성은 그러나

3) 중국 여자들의 태국으로의 이주는 1882-1892년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전체 이주민중 2-3%를 넘지 않았다. 1893-1905년 기간에도 5%에 불과했으며, 1906-1917년 기간에야 10% 정도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Skinner(1957, 126-127)를 볼 것.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19세기 중엽 태국을 방문한 보우링의 관찰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 민족성, 복식, 종교적 관습, 전통, 습관, 사회적 조직을 보존한다. 비록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의 민족들과 결혼하지만, 중국적 유형이 지배적인 것으로 남게되어, 그 자식들은 거의 예외 없이 아버지의 모델에 따라 교육되며, 어머니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비록 중국인들은 흔히 많은 재부와 큰 영향력 그리고 종종 그들의 부유함 때문에 높은 관직을 획득하지만, 그들의 나라와의 유대관계는 결코 단절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 . 집단으로 서 그들은 시암인들로부터 거의 격리되어 있다. . .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사원을 갖고 있으며, 시암 승려들의 관습이 아니라 중국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 부처를 숭배한다(Bowring 1857, I, 84-86).

보우링은 여기서 화인 후예들의 정체성이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중국적으로 유지된다고 말하고 있다. 스킨너는 화인 후예들이 타이 사회에 동화되는 정도와 속도는 그들이 성장하고 활동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다고 본다. 예컨대 방콕의 차이나타운과 같이 중국적 성격이 강한 지역의 화인 후예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한 타이적 성격을 띠는 곳에 사는 화인 후예보다 더욱 중국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Skinner 1957, 132). 보우링이 관찰한 중국인 자식들은 추측컨대 전자의 중국인 후예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화인 후예들 중에서는 그러나 여러 다른 기록들을 검토할 때 타이 사회로 동화되어간 자들도 상당히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예컨대 귀츠라프는 “[중국인 자식들은] 종종 그들의 변발을 잘라버리고, 일시적으로 시암의 승려가 된다. 그리하여 2세대 혹은 3세대 내에 중국적 성격을 구별짓는 모든 외형적 표시는 점차 소멸되어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그 민족적 관습을 집요하게 고집하는 한 민족이 완전히 시암인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Gützlaff 1834, 35). 이처럼 화인 후예들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중국적 정

체성을 유지했지만, 부분적으로는 타이 사회에 동화되어 갔음은 캠벨의 다음의 보고에서도 시사되어 있다.

비록 중국인들의 태반이 여전히 이주하는 무리로서 끝없이 중국으로부터 왔다가 (노년기에 그들의 고향으로 간주하며 그들의 시신의 안식처이기를 희망하는) 중국으로 돌아가곤 하지만, 이제 해협식민지 출생의 중국인들이 그들이 태어난 나라에 대해 갖는 것과 같은 감정을 시암에 대해서도 갖는 세대가 자라고 있다. 시암에서 태어난 중국인은 거의 예외 없이 시암인 어머니의 아들이다. 그것은 이 나라에는 순수한 중국인 여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많은 경우에 있어서 타이어 외의 다른 언어는 구사하지 못하지만, 그는 중국인임에 대해 긍지를 갖고 다른 중국인들과 같이 변발을 하며 그의 [중국]姓을 계속 달고 다닌다. . . 그러나 [이러한 혼혈 중국인들의] 2세와 3세에서는 이 나라의 토착인들 사이로 흡수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Campbell 1902, 274-275).

이처럼 화인 후예들은 그 사회적 환경에 따라 혹은 중국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혹은 타이 사회로 동화되어 갔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 한계성을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에서 인용한 캠벨의 서술 끝부분에서 암시되어 있듯이, 타이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화인 후예들은 그 세대가 내려올수록 점차 거의 모두 타이 사회로 동화되어 갔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키너는 이주 중국인과 타이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화인 2세의 경우 대부분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간주했지만, 이 화인 2세의 자식들 즉 화인 3세부터는 통상적으로 스스로를 타이인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Skinner 1957, 132-134). 스키너의 이 결론은 물론 일반화의 위험을 안고 있지만, 20세기 초 이전 태국 화인사회의 정체성 문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가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태국 화인들의 정체성 문제는 1910년을 전후로 중화민족주의의 대두로 큰 변화를 갖게 되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점은 1910년대 이후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화인들의 타이 사회로의 동화가 극히 완화된다는 것이다. 스키

너는 1918-1932년간 화인들이 타이 사회로 동화되는 것을 저해한 원인으로 다음의 네 가지 요인을 든다. 첫째, 위의 기간 매년 7만-15만명의 중국인들이 태국으로 유입되어 중국태생 화인들의 숫자가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인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둘째,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중국인 여자의 이주가 크게 늘었고 전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어 학교의 증대로 화인 2세들이 중국어와 중국의 문화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넷째, 중국에서의 정치적 변동 특히 일본의 침략으로 중화민족주의적 정서가 화인 2세들에게도 미쳤다(Skinner 1957, 253-25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느 정도의 기간에서도 태국 화인들 특히 도시상업지역의 화인들은 상당 부분 중국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1947년경 1만명 중국국적 화인들의 연령 및 성별 분포상황에 대한 통계에서 추측할 수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총 3,304명의 여자 중 15세-49세 사이가 2,377명으로 72%를 차지했으며, 특히 20세-39세 사이가 1,571명으로 48%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와 비율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시기에 태국으로 이주해 온 중국인들 가운데 결혼하여 부부가 함께 혹은 가정 단위로 이민온 자들이 많았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 스키너의 조사에 의하면, 1945년 이후 중국인 남자인주자의 약 반이 아내를 데리고 왔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 제2차 세계대전 후가 되면 태국 화인 2세의 젊은 세대 중 태반이 중국태생이거나 태국태생의 중국인 어머니를 두고 있었다. 이것은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국 화인남자들이 타이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점차 적어지게 된 결과를 낳았으며, 그것은 특히 방콕 등 화인들이 밀집해 있는 상업도시들에서 더욱 심했다(Skinner 1957, 195-196).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볼 때 타이 정부의 중국인 이주제한 정책과 특히 1950년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이주가 종식된 상황에서 태국 화인사회는 점차 타이 사회로 동화되어 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중국국적 화인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었다는 점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처럼 보인다. 태국은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화인들이 도착사회에 가장 잘 동화된 나라로 간주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스키너는 이주 중국인들의 후예들이 대부분 타이

사회에 완전히 동화하여 토착주민과 구별할 수 없게끔 되어버리며, 4세대 째에는 중국인이 더 이상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Skinner 1963, 1-2). 태국에서의 화인들의 높은 동화율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 중 여러 학자들에 의해 종종 제기된 바 타이인과 중국인이 같은 기원을 가진 민족들이라는 설명은 전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Landon 1941, 1-4). 이에 비해 스키너는 화인들이 타이 사회로 쉽게 동화되는 것을 다음의 요인들로 설명한다. 첫째, 음식과 종교 등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처럼 타이 문화와 중국 문화간에는 상호유사성이 있다. 둘째, 타이인과 중국인들은 신체적 외모에서 그 차이가 비교적 적다. 셋째, 타이 문화의 활력과 지속성, 그리고 태국의 독립보존에 대한 타이인들의 역사적 긍지 등이 중국인들에게 타이 사회로의 동화에 대한 매력을 주었다. 넷째, 태국에서 중국인들이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타이 사회에 쉽게 동화될 수 있었다. 다섯째, 대부분의 타이 정부들이 다양한 경제적 조치들과 타이어 중심의 학교교육 등의 정책을 통해 중국인들을 타이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Skinner 1957, 365-372; Skinner 1973, 311, 378, 399).

오늘날 태국 화인들이 대부분 태국국적을 취득하고 현지사회로 귀화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동화의 시각을 강화할 것이다. 화인들의 대부분은 타이어를 말하고, 타이 학교에 다니고, 타이인들의 조직에 가담하고, 태국의 명절 및 종교적 축제들을 기린다. 스스로를 타이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들은 태국의 국기와 태국의 왕실에 대해 충성을 맹세할 것이며 태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태국국민의 일원으로서 주권의식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Supang Chantavanich 1997, 254). 그러나 태국 화인들의 동화는 그렇게 간단히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태국의 화인들 특히 방콕 일대에서 살고 있는 술한 화인들의 적지 않은 부분에서 아직도 강한 중국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화인들은 타이 사회에서 여전히 스스로를 사회학적으로 별개의 부분으로서 유지하고 있으며, 화인과 타이인간의 결혼도 이전에 추측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게다가 특히 방콕 일대에서 화인들의 이해관계를 돌보아 주는 경제적, 종교적 화인단체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상당히 많으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밖에 방콕 도처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사설 화인학교들도 화인사회의 중국적 종족정체성을 반영한다. 태국의 한 중국상인 가정의 생활을 그린 보탄의 소설 *Letters From Thailand*에서 응우언 통(Nguan Tong)은 임종 직전 그의 사위인 사옹우(Saung U)에게 손자들에게 중국의 전통을 사랑하고 모국을 항상 잊지 말도록 가르치는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주인공 사옹우는 많은 화인들이 비록 국적은 태국인 것을 인정하지만 중국적 뿌리를 항상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다(Botan 1991, 93, 140).

태국 화인사회의 이러한 잠재적 종족정체성은 화인들의 문화적 실생활의 제반 측면, 특히 언어생활과 종교에서 분명히 드러나며, 이것은 스키너가 강조한 동화의 요인들이란 동전의 한 면만을 본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선 언어생활을 보면, 비록 거의 모든 화인들은 타이 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해 타이어를 습득했지만, 대부분은 동시에 부모의 고향의 방언을 구사하며, 때로는 만다린 혹은 다른 방언까지도 구사하는 등 이중언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3세 화인들 중에서도 방언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적지 않은 화인들은 아내가 타이인인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굳이 중국어(혹은 방언)를 가르치고자 한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들이 중국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첫째 가족간의 대화수단이기 때문이며, 둘째 사업상 필수적이기 때문이다(Chan Kwok Bun & Tong Chee Kiong 1993, 151-152). 종래 동화의 과정에 있어서 교육의 문제와 현지어 습득이 중시되어, 스키너를 중심으로한 여러 학자들은 타이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타이 학교에서 타이어 교육과 태국식 교육을 받는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나친 일반화의 논리인 이러한 관점은 태국의 모든 화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 커글린에 의하면, 태국에서 1930년대와 1940년대에 비해 1960년대에 중국어 교육이 강해졌다. 그것은 화인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숫자가 1938년에 17,000명이었던 것에 비해 1960년에는 63,000명이었던 사실로부터 분명해진다(Coughlin 1960, 144-168). 오늘날도 방콕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방들에서 많은 화인학교들을 볼 수 있다. 1989년 방콕에서만 102개의 중국어 학교가 있었으며, 전국적으로는 모두 213개에 달했다.

이들은 타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화학(華學)”이라는 용어 대신 “민학(民學)”, “공학(公學)”으로 불리며 타이 학교의 정규과목을 가르치지만, 타이 학교와의 중요한 차이는 수업이 타이어와 함께 중국어로도 행해진다는 점이다. 이처럼 많은 중국어 학교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은 태국의 화인 부모들이 중국어 교육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화인 가정들 중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여전히 화인학교에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화인들은 자녀들을 완전히 중국어로만 수업하는 사설학원에 보내고 있으며, 때로는 중국인 가정교사를 고용하여 자녀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게 한다. 유행하는 또 다른 방식은 낮에는 타이 학교에, 저녁에는 화인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이다. 어떤 부모들은 심지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혹은 타이완으로 유학시켜 올바른 중국교육을 받는 것을 중시한다(Chan Kwok Bun & Tong Chee Kiong 1993, 153-155). 1992년 초 타이 정부는 사립학교와 대학들에서의 외국어교육을 완전히 자율화했다. 이로써 특히 중국어를 비롯한 모든 외국어의 수업에 대한 종래의 모든 제한이 철폐되었다. 이 조치는 그 사이 특히 중국어와 일본어가 사업상 국제적으로 중요한 언어들로 되어 있음을 교육부가 인식함으로써 취해진 것이었는데, 어쨌든 이로써 차후 태국 화인들의 중국어 교육에 대한 열의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Südostasien aktuell März 1992, 137).

종교적 생활에서도 화인들의 잠재적 종족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스키너는 중국인들과 타이인들의 종교적 생활에 있어서의 기본적 유사성이 궁극적으로는 동화를 촉진시킨다고 추측하면서, “대승불교의 요소를 포함한 화인종교는 테라바다불교와 비슷하다. 중국인들의 종교적 정서는 배타적이라기 보다는 절충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이다. 따라서 종교는 태국에서 중국인들의 동화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Skinner 1973, 408). 그러나 불교를 반드시 동화 촉진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대승불교와 테라바다불교의 종교적 생활간에 계율에 대한 관점을 비롯하여 많은 세부적 차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밖에 타이인들의 불교사원에 비해 화인들이 참배하는 중국사원에는 대승불교의 관세음보살상 외에도 관우(關羽), 마조(媽祖), 대백공(大伯公) 등등 도교의 신들을 안치해 둔 사당과 유교적인 공자사당도

있게 마련이다. 또한 타이인들은 절에서 죽은 자들을 화장하지만, 화인들은 매장하는 것을 선호한다. 1979년에 수행된 한 조사에 의하면, 태국 화인들의 60%가 매장의 관습을 따르고 있었다(Chan Kwok Bun & Tong Chee Kiong 1993, 160-161). 이 매장 관습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욱 중요한 차이는 타이인들이 조상에 대한 어떤 제의적 의무가 없는 것에 비해, 화인들에게는 조상숭배와 관련된 제반 제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방콕에서 행해진 1971년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중 9명의 화인 응답자가 조상숭배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Punyodyana 1971, 34). 조상숭배의 제의는 중국인들의 종교적 생활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속하며, 중국인의 사회적 생활의 기본적 단위인 가정의 통합과 지속에 기여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종교적 생활과 관련하여 태국 화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역시 중요한 또 다른 요인으로서 화인들의 종교적 및 민속적 절일이 있다. 조상숭배와 긴밀히 연결된 청명일이 되면 묘지를 찾는 화인들의 교외 나들이로 방콕의 교통이 혼잡해진다. 음력설인 춘절에는 화인의 가게들이 화려한 치장을 하고 태국 전체가 축제의 물결에 휩쓸린다(Chan Kwok Bun & Tong Chee Kiong 1993, 161).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화인들은 타이 사회와의 오랜, 다양한 접촉을 통해 한편으로는 동화되어 점차 타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조직적, 사회문화적 활동을 통해 “중국적인 것”을 고수하면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상황주의적(circumstantial) 요인에 따른 동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원초주의적(primordial) 논리에 따른 정체성을 결합하여, 태국에서 화인들이 보여주는 “이중적 정체성”(double identity)이란 한 독특한 문화적 적응의 측면에 중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커글린은 이와 관련하여 태국의 화인들이 타이 사회와의 오랜 기간의 접촉을 통해 적응과 융통성의 문화적 패턴을 발전시켰다고 말한다. 즉 그들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타이 방식을 수용하는 것을 배워 왔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적인 원초적 특성들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Coughlin 1960, 11). 이 이중적 정체성은 중국인들의 실용주의적 인생관과 결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화인 단체에 가입한 화인 사업가들의 대부분은 동시에 태국무역청(Board of

Trade of Thailand)이나 태국상공회의소(Thai Chamber of Commerce)와 같은 타이 사회의 주요 경제적 조직들의 회원이기도 하다 (Chan Kwok Bun & Tong Chee Kiong 1993, 156-157). 이 경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화인 사업가들은 타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태국의 정치, 군사,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타이 엘리트와 결탁한 것이며, 이것은 한편 타이 엘리트들로서는 정치적 및 군사적 권력을 지탱할 경제적 기반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중적 정체성”은 화인사회와 타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V. 종합적 관찰

중국인들이 어떤 배경과 동기로 태국으로 이주하여 화인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켰는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선 태국적 요인들을 보면, 이미 17세기 초에 편찬된 『東西洋考』에서도 타이인들이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중국인들에게 친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인들에 대한 타이 사회의 호의적인 태도를 들 수 있다(Skinner 1957, 8). 이와 함께 17세기 말에 프랑스인 드라 루베르가 관찰한 바 외국인들이 태국에서 그들의 관습과 신앙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었던 타이 사회의 자유로운 분위기도 한 중요한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La Loubère 1691, 366). 상업적 측면에서는 19세기 중엽까지 활발히 진행된 남중국해 무역에서 태국이 중국상인들에게 지정학적으로 유리했다는 점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19세기 중엽까지 중국과의 조공무역을 포함한 남중국해 무역에 대해 타이 정부가 전통적으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무역에 대한 관심 때문에 타이 사회는 상인, 항해사, 선원, 통역인, 부두 하역인부, 징세청부인 등으로서의 중국인들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했으며, 이 점은 중국인들에게 호의적인 타이 사회의 분위기와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는 화상들을 위해 유리한 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결합하여 많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수세기에 걸쳐 태국으로 지속적으로 이주, 정착토록 했던 것이다. 19세기 중엽-20세기 중엽의 기간에서는 서구의

자본이 태국에 진출하고 그에 따라 태국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팽창되면서 많은 중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으로부터 태국으로의 이주를 촉진시킨 이러한 요인들에 비해, 20세기 타이 정부의 반화인정책 특히 이민규제 조치는 화인사회의 발전을 저지한 것이었다.

둘째, 중국적 요인으로서 무엇이든 중국에서의 여러 왕조교체기들, 19세기 중엽 중국의 문호개방과 태평천국운동, 20세기 전반 군벌간의 내전, 중일전쟁 그리고 가뭄, 홍수, 흉작의 자연재해 등 중국으로부터 동남아로 대량 이주를 유발시킨 중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동들이 있었다. 한편 1949년의 공산화는 중국인들의 대량 이주를 종식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끝으로 국제적 요인들로서 19세기 중엽 서양열강들에 의한 태국의 문호개방과 그로 인한 서양 자본의 확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19세기 후반 태국-중국 간 증기여객선의 정기노선 개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배경으로 태국으로 이주했던 중국인들은 타이 사회에서 비교적 쉽게 상업적인 기득권을 획득하여 태국의 거의 모든 큰 규모의 사업들뿐만 아니라, 방콕 등 주요도시와 시골 마을에서의 소매업을 비롯하여 요식업, 숙박업, 도정업 등 소규모 사업들에서도 지배적이었다. 그들은 또한 목수, 이발 및 미용, 대장장이, 귀금속공예, 직조 및 염색, 제화(製靴) 등 수공업 및 장인 분야와 서비스업에서도 타이인들보다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여 주었다(Skinner 1957, 301; Coughlin 1960, 119). 그러나 화인들의 직업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무엇보다도 상업 부문이다. 커글린은 1960년경 태국 화인들의 약 70%가 상업 및 그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그는 화인들이 상업적 활동에서 성공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친족 및 친지 중심의 사업운영으로서, 대개 가까운 친족, 먼 친척, 같은 방언집단의 사람 등의 순서로, 즉 그 관계의 긴밀도에 따라 사업체의 인력을 고용하기 때문에 신뢰적인 경영구조와 고용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태국의 화인들은 어릴 때부터 장사가 몸에 배인 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타이인들이 일반 백성의 경우 벼농사지향적이며 엘리트의 경우 관료지향적이라는 전통적 직업관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Coughlin 1960, 121-138).

〈참고문헌〉

- 方雄普·謝成佳 編. 1993. 『華僑華人概況』. 北京: 中國華僑出版社.
- Botan. 1991. *Letters From Thailand*. Trans. Susan Fulop. Bangkok: Duang Kamol.
- Bowring, John. 1857. *The Kingdom and People of Siam*. Vol.2. London. Reprinted.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Campbell, J. G. D. 1902. *Siam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Edward Arnold.
- Chan Kwok Bun & Tong Chee Kiong. 1993. "Rethinking Assimilation and Ethnicity: The Chinese in Thailand."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27.
- Coughlin, Richard J. 1960. *Double Identity: The Chinese in Modern Thailand*.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Gützlaff, Karl Friedrich August. 1834. *Journal of Three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 in 1831, 1832, & 1833, with Notices of Siam, Corea, and the Loo-choo Islands, to which is Prefixed an Introductory Essay on the Policy, Religion, etc., of China by the Rev. W. Ellis*. London: F. Westley.
- Hicks, George & Mackie, J.A.C. 1994. "Overseas Chinese: A Question of Identit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y 14).
- Ingram, James C. 1971. *Economic Change in Thailand 1850-197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Kamolwan Sonsomsook. 1981. "The Chinese of Thailand." *The Star* (November 12).
- La Loubère, Simon de. 1691. *Du royaume de Siam*. in Michel Jacq-Hergoualc'h, *Etude historique et critique du livre de Simon de La Loubère <Du Royaume de Siam> - Paris 1691 -*. Paris: Editions Recherche sur les Civilisations. 1987.
- Landon, Kenneth Perry. 1941. *The Chinese in Thailand*. New York:

- Russel & Russel.
- Punyodyana, B. 1971. *Chinese-Thai Differential Assimilation in Bangkok: An Exploratory Study*. Data Paper 79. Ithaca: Southeast Asian Program, Cornell University.
- Skinner, G. William. 1957. *Chinese Society in Thailand: An Analytical Histor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kinner, G. William. 1963. "The Thailand Chinese: Assimilation in a Changing Society." A lecture presented at the Thai Council of Asian Society.
- Skinner, G. William. 1973. "Change and Persistence in Chinese Cultures Overseas: A Comparison of Thailand and Java." J.T. McAlister, ed. *Southeast Asia: The Politics of National Integration*. New York: Random House.
- Südostasien aktuell (März) 1992. Hamburg: Institut für Asienkunde.
- Suehiro, Akira. 1985. *Capital Accumul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Thailand*.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Social Research Institute.
- Suehiro, Akira. 1992. "Capitalist Development in Postwar Thailand: Commercial Bankers, Industrial Elite, and Agribusiness Groups." Ruth McVey, ed. *Southeast Asian Capitalists*. Ithaca: SEAP, Cornell University.
- Supang Chantavanich. 1997. "From Siamese-Chinese to Chinese-Thai: Political Condition and Identity Shifts among the Chinese in Thailand." Leo Suryadinata, ed. *Ethnic Chinese as Southeast Asians*. Singapore: ISEAS.
- Thompson, Virginia. 1941. *Thailand, the New Siam*. New York: Macmillan.
- Thomson, Curtis N. 1993. "Political Identity Among Chinese in Thailand." *The Geographical Review*, Vol.83.
- Vatikiotis, Michael. 1996. "Sino Chic."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anuary 11).
- Wang Gungwu. 1991. *China and the Chinese Overseas*. Singapore: Times Academic Press.

- Wanlapha Burutsaphat. 1974. "Khuam pen ma khong chao cin nai prathet thai." (태국 화인의 변천사). Khacatphai Burutsaphat, ed. *Chao cin nai prathet thai*. (태국의 화인). Bangkok: Phrae Phitthaya.
- Wyatt, David Kent. 1984. *Thailand: A Short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